

시론



박대우 지역발전정책연구원장

12월 22일, 이후

2019년 3월1일 0시30분께, 북한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를 인정하고 떠난 뒤에서 남아있는 북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계 각국의 취재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자회견을 요청한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기존에 보여줬던 북한의 외교형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일부에서는 뭔가 긴박한 상황을 예상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북측 핵심인사인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미국이 유엔의 제재 중 일부 즉, 민수경제와 특히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지구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들

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

북한의 의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종합하면 유엔 조처의 전체적인 해제는 아니더라도 북한경제에 필수적인 제재만큼은 풀려달라는 것이다. 이 제재들 중에는 북한의 광업과 제조업, 수산물 수출까지 막는 수출 제재와 철강과 원유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제재였다. 결국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더 큰 난관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초강력 제재이기 때문이다. 이 제재에 따르면 각 회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 22일 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추방이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2만 3천여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숫자만큼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루트가 차단된 것이다.

12월22일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동자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북한경제를 지탱하던 외화유입이 줄어들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3차 회담에 대한 응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 각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빠져나간 공백은 다른 인력들로 대체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특성상 예전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연말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전에 없던 전략자산까지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더구나 탄핵국면을 마주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결국 북한은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내 놓았다.

남한과의 대결국면과 군사적 도발로 최대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며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협상의 상대를 유엔으로 바꾸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이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성이 줄어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고 주둔비용 협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도 예상했던 대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개입과 유엔의 등장,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社說

AI·블루이코노미, 착실하게 실행해가야

광주시·전남도의 각각 신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과 블루이코노미 사업이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당초 국회에서 삭감될 것이란 예측을 깨고 증액 반영이란 ‘화답’을 얻었다. 벌써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선 광주의 AI 집적단지 조성 관련 예산이 성과다. 200억원 증가한 626억원을 확보했다. 자유한국당이 대폭 삭감을 예고한 AI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원안보다 크게 늘어 국가 선도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광주 국비는 정부안 2조4천250억원보다 1천129억원이 증액된 2조5천379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2조2천102억원보다 3천277억원(14.8%)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94건 1천968억원, 계속사업 192건 2조3천411억원이다.

전남도의 경우 민선7기 핵심사업인 새천년비전 ‘블루 이코노미’가 탄력을 받게 됐다. 블루이코노미는 전남지역의 풍요로운 청정 자원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

으로 이해됐다. 특히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집입도로 개설 사업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6성급 호텔과 콘도, 소풍물 등 총 1조3천85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2024년 초기 완공 토대가 마련됐다.

또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핵심사업 26건이 신규로 반영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 국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6조7천261억원보다 4천635억원(6.9%) 증액된 7조1천896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6조8천104억원보다 3천792억원(5.6%)이 증가한 것이다.

AI 산업과 블루이코노미는 이 지역의 산업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언제까지 소외된 지역으로 남을 수 없는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민선 7기의 역점 사업들이다. 이번 국비 대거 확보가 미래 지역 발전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인도에 쌓인 ‘쓰레기더미’ 단속 나서라

남광주시장 인근 천변우로 인도가 스티로폼과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고 한다. 단속 기관인 동구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은 쓰레기더미를 피해 차로를 보행하면서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다. 인도에 쌓인 쓰레기더미 대부분은 인근 남광주시장 상점들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로 추정된다. 이처럼 쓰레기로 뒤덮인 천변로를 걷는 시민들이 보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동구는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문제다.

동구는 지난 3년(2017년-2019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477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총 3천742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남광주시장 상인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7%(82건)에 그쳤다. 또 이 기간 동안 동구 관내에서 ‘재활용품 시간의 배출’을 적정한 단속 건수는 0건이었다고 한다.

현재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내 집(점포) 앞에 배출해야 한다. 동구의 경우 공

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요일 오후 8시-오전 6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천변로 인도에 사담 키 높이의 스티로폼 박스와 일반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광주시장 상가 쪽 인도는 판매 물품이 전 시때 시장을 일부러 찾는 방문객이 아니면 통행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시민들은 주로 천변로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쓰레기더미로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보행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차로를 내몰리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동구청은 남광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쓰레기더미가 도심 풍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해선 안 될 일이다.

상인들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폐기물과 쓰레기를 버릴 때 보다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한다.

기고



이세연 양지중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무관심은 소외된 조커를 만든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개봉한 ‘조커’는 배우의 연기력, 탄탄한 시나리오, 아름다운 영상미 등 영화 내적인 부분에서 극찬을 받았지만, 그 외에도 ‘복지의 필요성’, ‘사회구조의 불평등’, ‘폭력의 미화’ 등 영화 외적으로 다양한 논쟁거리를 만들어 낼 정도로 사회 현실적인 부분을 잘 그려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 아서 플렉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현실에서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아서 플렉은 자신의 감정과 다르게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우스꽝스러운 광대분장을

하고 망해가는 가게 앞에서 때론 어린이 병원에서 춤을 춘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유명 쇼를 보며 공부하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 환경은 그의 노력을 가차 없이 무시한다. 회사 동료와 사장은 그를 조롱했고, 상담사는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정치인에게선 계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짓는다. 아서는 가족, 친구뿐 아니라 회사, 도시, 사회 시스템 등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회 환경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그는 결국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폭력적인 ‘조커’가 된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아이의 발달 양상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인간 또한 자신이 속한 환경과 각각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환경

속의 인간(PIE)’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서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은 사회 요인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매우 제한된다. 남들과 조금 다른 경제 상황, 신체, 정서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정부의 지침 때문에 공정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소외될 때가 많다. 제한적인 인력과 정책 속에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기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기관뿐 아니라 일반 주민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의 복지기관은 호민관협의회, 지역 동장 모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협력하여 소외된 주민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직접 관심을 두고 소외된 주민을 발굴하면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자원을 연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주민의

작은 관심이 소외된 주민들에게 커다란 복지로 작용하게 된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이에 대해 필요한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지적이 아닌 아이에 대한 이해라는 말이 있다. ‘문제아’라는 낙인보다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홀로 고통받으며 슬퍼하던 아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관심이었는지 모른다. 직장 동료, 이웃 혹은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진심을 담은 인사 한마디만 건네주었다면 그는 소외된 ‘조커’가 아니라, 그의 애정처럼 함께 ‘해피’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처럼 상대방의 행복을 만드는 복지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았을까. 내 옆에 소외된 이웃이 있었는지, 한 해가 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며 작은 관심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독자투고

‘한순간의 실수’ 법은 피해갈 수 없다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만, 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만, 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한순간의 실수를 조심하자. 사회 규범과 법규에 벗어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선(線)은 직장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 대학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의 성추행 등 성범죄가 포함된다. 우리 주변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線)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최근 유명인사들부터 많은 사회 저명인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성추행과 성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을 자행함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

는 상처가 되고 평생 악몽같은, 기억조차도 두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데이트가 폭력이 되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협박 등으로 성폭행, 성희롱,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스토킹, 정신적인 압박 등을 가하는 행위로서 이는 질투와 감박, 소유욕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데이트 폭력을 방치할 경우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한 번의 실수라 여기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강력한 대응과 처벌로써 차후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토킹의 경우도 단순히 고의적 으르러다니며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주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치, 감금,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이 높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낱말이 발전,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와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을 편성, 예방과 단속을 통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성범죄자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가 폐지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성범죄자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고 등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다.

/\*윤시민·광주북부경찰서 두임지구대

그래픽 뉴스

美연준,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내년도 동결 기조 이어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일(현지시간)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7월말 이후 세 차례 연속 이뤄진 금리 인하 행진을 멈추고 동결 모드로 전환한 것은, 내년도 동결 전망이 훨씬 우세해 당분간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년 대선 전 ‘깜짝 인하’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조정할 유인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현 상태의 통화정책은 경제 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2% 목표 근방의 인플레이션을 지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했다. AP통신은 연준이 미중 무역전쟁이나 해의 상황의 충격에 대해 덜 우려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전개상황과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포함해 경제전망에 관해 입수되는 정보의 시사점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 인하 당시 성명에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논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